

2025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14

한 새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고, 기도에 꾸준히 힘쓸

성경: 골 3:15-17, 4:2-4

[골 3:15-17]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 4:2-4]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3)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할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내가 이것 때문에 간혀 있습니다). (4)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I.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 골 3:12-15, 2:14-18.

[골 3:12-15]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아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1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짚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골 2:14-18]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 버리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15)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16)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룻날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7) 이런 것들은 장래 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18) 겸허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들에 사로잡혀,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에 빠져서

A.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화평을 내리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짚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 골 3:13.

[골 3:1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짚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 용서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 안에서 사신다. 용서해 주는 것은 그분의 생명의 미덕 중 하나이다. 우리가 그분을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미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 우리는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몸의 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은 지체들에 대해서는 항상 화평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주님께는 감사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 B. ‘판정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심판을 보다’, ‘다스리다’, ‘모든 일의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할 때, 누구에 대해서든 우리의 불만이 해결된다 — 골 3:15, 13.
- [골 3: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 [골 3:1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짚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 C. 종종 우리는 우리 안에 세 편, 곧 긍정적인 편과 부정적인 편과 중립적인 편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다툼을 끝내는 내적 중재가 필요하다.
 1. 언제든지 우리의 존재 안에서 서로 다른 편들이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화평에 지위를 내어 주고, 새사람의 하나(oneness)라는 이 화평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한다.
 2. 우리는 우리의 의견, 우리의 관념을 제쳐 두고, 내주하시는 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D.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을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화평을 가질 것이다.
 1.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성도들 간의 마찰은 사라진다. 그럴 때 교회생활은 달콤함 속에 보존되고 새사람은 실지적으로 유지된다.
 2.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 그분의 다스리심을 행사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며, 회종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이다 — 비교사 9:6-7.

[사 9:6-7]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 통치가 /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 그분의 이름은 / 놀라우신 조언자 / 전능하신 하나님 / 영원하신 아버지 /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 (7) 디윗의 보좌 위에서 / 그분의 왕국 전역에서 / 그분의 통치가 끝없이 확장되고 / 그분의 화평도 끝이 없으리니 / 이제부터 영원히 / 정의와 의로 / 왕국을 굳게 세우시며 / 불드시리라. /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 이 일을 이루시리라.

 3. 우리가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 아래 머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손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 그분의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 요일 5:16상.

[요일 5:16]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에 관하여 그분께 청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4. 이러한 화평이 모든 믿는 이들을 함께 묶어 주고 연결하는 띠가 되어야 한다 — 앱 4:3.

[엡 4:3]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E.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게 할 뿐 아니라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몸의 생활 안에서 우리 마음은 항상 지체들을 향하여 화평의 상태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의 돌보심과 날마다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 골 3:15 하, 시 107:1-2, 8, 15, 21, 31-32.

[골 3: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 107:1-2]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2) 여호와께 구속받은 이들은 이같이 말하여라. / 그분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시고

[시 107:8]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애와 / 사람의 자손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시 107:15]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애와 / 사람의 자손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시 107:21]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애와 / 사람의 자손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시 107:31-32]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애와 / 사람의 자손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32)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그분을 높이며 / 장로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II.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 골 3:16-17.

[골 3:16-17]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A.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으뜸과 중심과 전부이신(골 1:16-17)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골 1:25-27).

[골 1:16-17]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골 1:25-27]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6)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B.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분한 입지를 가져 우리의 온 존재에 침투하고 온 존재를 적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관념과 의견과 철학을 대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시 119:130, 비교 계 21:23, 22:5.

[시 119:130]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 단순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계 21: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계 22: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C.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차지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유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들을 체험할 수 있다 — 골 3:16.

[골 3: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1.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 시 119:2, 88.

[시 119:2]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는 이들, /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이들은 복이 있다네.
[시 119:88] 주님의 자애에 따라 저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 저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증거를 지키렵니다.
2.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 자신을, 율법을 사랑하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 시 119:25, 50, 107, 116, 130, 154.

[시 119:25] ㄱ (달레트) / 제 혼이 진토에 달라붙였은즉 /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시 119:50] 이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저의 위로인 것은 / 주님의 말씀이 저를 살아나게 한 까닭입니다.
[시 119:107] 제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니 / 오, 여호와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시 119:116]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떠받치시어 살게 하시고 / 제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시 119:130]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 단순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시 119:154] 저를 변호하시고 저를 구속하여 주십시오. /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3.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의 혼을 소생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시 19:7-8.

[시 19:7-8]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 혼을 소생시키고 / 여호와의 증거는 신실하여 / 단순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의 법도는 올발라 / 마음을 기쁘게 하고 / 여호와의 계명은 분명하여 / 눈을 밝게 하며
4.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기능을 한다 — 시 119:41, 170.

[시 119:41] ㄴ (바브) / 오, 여호와님! 주님의 자애도 제게 임하게 하시며 /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 119:170] 제 간청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 주시고 /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건져 주십시오.
5.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시 119:28), 위로하며(76 절), 보양하는(103 절) 기능을 한다.

[시 119:28] 제 혼이 서러움에 녹아내리니 / 주님 말씀에 따라 제게 힘을 주십시오.
[시 119:76] 간청하오니, 이 종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 주님의 자애가 제 위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시 119:103] 주님의 말씀들이 제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 제 입에 꿀보다 더 담니다.
6.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떠받치고, 안전하게 지켜 주며, 소망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 — 시 119:116-117, 49.

[시 119:116-117]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떠받치시어 살게 하시고 / 제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117) 저를 불드시어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 그리하시면 제가 주님의 율례들을 늘 존중할 것입니다.
[시 119:49] ㄷ (자인) / 이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 주님은 제가 이것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7.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우리의 뜻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한다 — 시 119:57.

[시 119:57] ㄹ (헤트) / 여호와는 저의 뜻이시니 / 저는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8.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얼굴(시 119:58)과 그분의 얼굴의 빛 비춤(135 절)을 누리게 한다.
[시 119:58] 제가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였으니 /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은혜로이 대하여 주십시오.
[시 119:135] 주님의 얼굴을 이 종에게 비주어 주시고 / 주님의 울례들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9.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우리의 은신처와 방패(시 119:114)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대하심(175, 65 절)을 누리게 한다.
[시 119:114] 주님은 제 은신처요 제 방패시니 / 제가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시 119:175] 제 혼이 살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 주님의 규례들이 저를 둑게 해 주십시오.
[시 119:65] ♫(테트) / 오,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 이 종을 잘 대해 주셨습니다.
10.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는 기능을 한다 — 시 119:98-99.
[시 119:98-99] 주님의 계명들이 저를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함은 / 그것들이 저와 항상 함께 있는 까닭입니다. (99) 제가 제 모든 스승보다 더 통찰력 깊음은 / 주님의 증거들을 읊조리는 까닭입니다.
11.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별력과 지식을 주는 기능을 한다 — 시 119:66.
[시 119:66] 제가 주님의 계명들을 믿으니 / 합당한 분별력과 지식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12.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고,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를 지켜 준다 — 시 119:11, 101.
[시 119:11] 저는 주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시 119:101] 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 온갖 악한 길에서 제 발길을 돌렸습니다.
13.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고(시 119:165), 우리의 발걸음을 안정되게 하며, 우리로 죄악을 이기게 해 준다(시 119:133).
[시 119:165]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 그들에게는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시 119:133] 제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키시고 / 어떤 죄악도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14.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그분의 신부가 되도록 순수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 — 시 12:6, 119:140, 액 5:26-27, 사 60:7 하, 21, 시 27:4.
[시 12:6]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니 / 흙 도가니에서 제련되어 / 일곱 번 정련된 은과 같습니다.
[시 119:140] 주님의 말씀은 지극히 순수하니 / 이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액 5:26-27]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 60:7] “계단의 양 떼가 너에게로 모여들고 / 느바웃의 숫양이 너를 섬기리니 /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올려져 기쁘게 받아들여지며 / 나는 내 아름다운 집을 더 아름답게 하리라.
[사 60:21] 그때 네 백성이 모두 의롭게 되어 / 땅을 영원히 차지하리니 / 그들은 나를 아름답게 하도록 / 내가 심은 가지요 /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시 27: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 그것을 구하리니 / 내 평생에 /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 D. 말씀이 우리의 체험에서 빛인지 아닌지는,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태도와 상태에 달려 있다 — 요 5:39-40.

[요 5:39-40]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40)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1.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며 긍휼을 구해야 한다 — 사 57:15, 66:2.

[사 57:15] 높고 드높으신 분, / 영원 안에 거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 또한 통화하는 이와 겸허한 영을 지닌 이들과 함께 거하여 / 겸허한 이의 영을 소생시키고 / 통화하는 이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사 66:2]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을 굽어보리니 곧 가난한 사람과 / 통화하는 영을 가진 사람과 내 말에 떠는 사람이다.

2. 주님의 빛 비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내적 존재의 모든 방이 열려야 한다 — 잠 20:27.

[잠 20:27]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 E. 우리는 빛을 만들어 내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에게 빛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 사 50:10-11.

[사 50:10-11]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가 누구며 / 그분 종의 목소리를 듣는 이가 누구냐? / 어둠 속을 거닐어 / 빛이 없는 이가 누구냐? / 그런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11) 참으로, 불을 피우고 / 횃불로 자신을 두른 너희는 모두 / 너희의 불빛 가운데로 / 너희가 불붙인 횃불 가운데로 들어가거라. /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 바로 너희가 고통 가운데 눕게 되는 것이다.

III.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 골 4:2-4.

[골 4:2-4]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3)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할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내가 이것 때문에 간혀 있습니다). (4)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 A. 누가복음 11 장 2 절부터 4 절까지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한다면,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할 것이다.

[눅 11:2-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3)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4)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1. 우리는 체험 가운데서 자주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2.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에 매일 아침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그분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 시 5:3, 사 50:4.

[시 5:3] 오, 여호와님! 아침에 / 주님은 제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 아침에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 무어라 하시는지 보렵니다.

[사 50:4]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 지친 사람을 말로 불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3.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빗나가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할 것이다.
4.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급을 위해 (떡과 생선과 달걀로 대표되는) 그분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인다 — 뉴 11:5-13.

[뉴 11:5-13]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친구여, 떡 세 개만 빌려주게. (6)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으나,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말한다면, (7)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가 없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8)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가 염치없이 졸라 대기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줄 것입니다. (9)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10)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마다 얻고, 찾는 사람이 찾아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여러분 중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습니까? (12) 또 아들이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습니까? (13)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5. 떡은 땅의 풍성을 대표하고, 생선은 바다의 풍성을 대표하며, 달걀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것의 풍성을 대표한다. 성령은 이러한 풍성들의 총체이시다.
6.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여 그분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떡과 생선과 달걀로 상징되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자신이 먹고,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도 먹일 수 있다 — 마 24:45-46, 요일 5:16 상, 고후 3:6, 행 6:4.

[마 24:45-46]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46)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마 5:16]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고후 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행 6:4]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7. 우리는 기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접촉해야 한다 — 뉴 11:13, 마 14:22-23, 6:6.

[뉴 11:13]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 14:22-23]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23)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훌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마 6: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 B.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도가 진정한 자아 부인임을 함축한다 — 막 8:34, 9:29, 골. 4:2, 갈 2:20, 빌 3:3, 4:6-7, 11-13.
- [막 8:34]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 [막 9:29]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 [막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 [빌 3:3]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 [빌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 [빌 4:11-13]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C.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 갈 2:20, 룸 10:12-13.
-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 [룸 10:12-13]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13)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 D. 우리는 가장 사소한 문제도 주님께 여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에 꾸준히 힘씀으로써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 시 27:4, 비교 수 9:14, 빌 4:7-8.
- [시 27: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 그것을 구하리니 / 내 평생에 /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 [수 9:14]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을 받았으나 여호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 [빌 4:7-8]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 E. 우리는 기도를 위해 명확한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한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단 6:10, 행 12:5, 12.
- [단 6:10] 다니엘은 그 금령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그의 위층 방 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 전에 늘 하던 대로 날마다 세 번 자신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 [행 12:5] 이렇게 되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 [행 12:12]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F.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익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 — 왕상 8:48.

[왕상 8:48]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1.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할당한 뜻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골 1:12, 2:6-7, 신 8:7), 거룩한 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며(시 48:1-2), 거룩한 성전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한다(엡 2:21, 딤전 3:15).

[골 1: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뜻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골 2:6-7]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7)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신 8:7]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좋은 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시 48:1-2]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 우리 하나님의 성, /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 크게 찬양을 받으신다네. (2) 우뚝 솟아 아름다우며 / 온 땅의 기쁨인 / 북편 끝 시온산! / 이는 크신 왕의 성이라네.

[엡 2: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딤전 3: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2.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들을 열고 하루에 세 번 기도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의 목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임을 가리킨다 — 단 6:10.

[단 6:10] 다니엘은 그 금령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그의 위층 방 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 전에 늘 하던 대로 날마다 세 번 자신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3.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익, 곧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겨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우리가 기도에 꾸준히 힘쓰므로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할 때, 그분은 우리의 타고난 모든 차이점들이 제거되고 우리가 실제로 새사람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침투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대치하신다 — 골 3:15-17, 4:2-3, 3:10-11.

[골 3:15-17]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 4:2-3]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3)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할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내가 이것 때문에 간혀 있습니다).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